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총성    제목 : 하나님께 총성하는 사람    성경:여호수아  
14장 6-15절

6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총성하였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총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수14:6-15)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윤리 몇 가지 가운데 총성이 있

다.

충성이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 덕목 가운데 탁월하게 빛나는 한 면이다.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필시 충성이라는 덕목도 있으리라.

모든 위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충성이라는 덕목이 있다.

-기독교적 충성이란 오직 하나님 만을 섬기며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코 부족함이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 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12:7)

-온 집이라는 표현은 패밀리적 개념이 담겨 있다. 충성이란 다분히 가족관계와 같은 형제애를 포함하고 있다.

-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패역'이다. -패역이란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받아 들여 그 마음이 부패해 지고, 그 거짓으로 의를 삼고, 그 의로 그 주인을 비판하고 그 주인에게 반대하며 그 주인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마음과 행동들이다.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78:8)

13 충성된 시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25:13)

-충성이란 그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는 정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충성 하였다. 다들 마음이 부패해 저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사업을 업수히

여기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모세에게 대들 때 여호수아와 갈렘만큼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다.

-갈렘은 가나안 정복전쟁 내내 충성스럽게 전쟁에 임하였고, 그 결과 나이 많아 늙었지만, 최후에 자신이 원하는 땅, 약속의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은 것이다. 그는 다른 지파의 땅을 얻는데도 충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얻는데도 충성하여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였다.

-다윗은 결코 사울왕을 자기의 손으로 헤치지 않았다. 왜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충성)

-WTC 이희돈 부총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금요철야의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쪽의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다.

-사렘다 과부, 과부의 두렘돈도 마찬가지.

-충성이란 어려울 때일수록 그 진가가 더욱 나타난다.

-어려워졌으니 충성하기 힘든 것을 이해해 주세요가 아닌, 어렵지만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변할 수가 있나요.

-느헤미야는 최고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삶을 버리고 위험천만하며 대적들로 겹겹이 싸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의 도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충성하였다.

-우리에게는 많은 저수도 있고, 많은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높이 사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시련도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의 가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 (엘리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 바아사의 가문, 사울의 가문 등 충성하지 아니한 가문은 멸망 당한다.)

-충성이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왜냐면 죽음 이후의 영광을 믿기 때문이다. 만약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찬양예배>

주제: 품위    제목: 기독교인의 품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14:40)

3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  
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7:35)